



## 썸 수집가 신점식 썸 한장에 담긴 희망을 모으다

글 박연숙(본지기자)

10월 8일 부산우체국에서는 자갈치축제를 기념한 우표전시회가 열렸다. 우체국 로비에 우취인들이 내놓은 우표들을 전시하는 작은 전시회지만, 수집가들에겐 의미 있는 자리다. 주된 전시 품목은 우표와 엽서지만 간혹 썸과 관련된 것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우표전시회에 전시된 우표 설명을 맡은 신점식 씨는 우표는 물론 30여 년간 썸을 수집해 온 열혈 수집가다. 특히 지난 2000년 대한결핵협회가 주최한 썸 콘테스트에서 은상을 받았을 정도로 썸에 대한 애착이 크다.

신점식 씨는 30여 년간 크리스마스 썰을 수집해 왔다고, 학생 때부터 우표를 모으다보니 자연 스럽게 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데, 처음엔 그저 취미로 시작한 것이 30년 세월이 흘렀다. 그저 모으는 재미에서 출발했다는 그에게 왜 썰을 모으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질문일 테지만, 썰 수집을 단지 즐거움으로 여기기에는 드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기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이 질문은 비단 신점식 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집가들에게 궁금한 점이기도 하다. “돈이요? 엄청나게 들어갔죠, 하지만 일단 수집에 재미를 붙이면 돈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덕에서는 이런 취미를 별로 반기지 않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신점식 씨는 소장 썰을 궁금해하는 기자에게 마치 보물단지를 꺼내듯 그동안 수집한 썰을 꺼내 보였다. 크리스마스 썰이 대한결핵협회의 이름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협회 창립시기인 1953년.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썰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썰이 처음으로 발행된 1932년과 이후 비연속적으로 발행된 썰들이 곁게 스크랩 되어 있었다. 썰 뿐만이 아니다. 썰 관련 북렛, 포스터, 엽서까지도.

“그럼 모든 썰을 다 갖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모든 썰을 갖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지, 내게 있는 건 저 사람에게 없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게 없고,” 모든 것을 다 모으면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 수집의 넌센스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수집가 또한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

같은 기계를 돌려도 100% 같은 인쇄가 나오지 않게 마련. 더군다나 인쇄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의도하지 않은 모양의 썰이 나오기도 했다. 우표처럼 천공을 하는 썰에서 무공썰이 나오기도 하고, 썰이 다 팔리면 2쇄를 찍은 적도 있으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무수한 썰들(비공식적인)이 나왔을 터이다. 당시에는 천대를 받았을 실패작이 후대에 와서는 훨씬 더 우대를 받으니, 생각할수록 이상하고도 이상한 썰의 운명이다.

수집의 또 다른 묘미는 나만의 방식으로 수집품을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썰만 모으지만 또 어떤 사람을 썰과 썰첩을 같이 모으고, 관련 스탬프도 같이 모은다.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어떻게 배열해 수집첩을 만들지는 전적으로 수집가의 몫이다.

조심조심 비닐 케이스에서 썰을 꺼내는 신점식 씨는 “이거 조심해야 돼, 썰 한 장 뜯는 데는 1분도 안 걸리지만, 이걸 다시 붙이려면 100년이 걸려도 못해요, 그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얘기예요.”

수집인들에게 있어 썰 한 장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결핵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크리스마스 썰이, 또 다른 이유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소중하게 다뤄지는 흐뭇한 현장을 목격하고 돌아온 취재였다. †